

大學生의 老人觀에 관한 研究

— 제주도를 중심으로 —

韓昌榮* · 姜東植**

目 次

- I. 緒 說
- II. 大學生의 老人觀에 관한 先行 研究
 - 1. 國內에 관한 先行研究
 - 2. 國外에 관한 先行研究
 - 3. 國內외의 先行研究에 대한 考察
- III. 濟州道內 大學生들의 老人觀에 관한 實態調査
 - 1. 調査設計
 - 2. 調査範圍와 方法
 - 3. 結果 및 分析
 - 4. 分析結果 要約
- IV. 結 論

I. 緒 說

大學生의 價値觀을 연구했던, 洪承稷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¹⁾

父母에게 孝하고 祖上에 奉祭祀하고 未亡人은 孀家에 복종해야 된다는 전통적 家族觀은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 孝보다는 개인의 獨立精神, 강한 신념, 완전한 인격양성을 존중시키고, 虛禮 虛飾의 祭祀에는 1/3 이상의 학생들이 不贊成을 표하고, 無子女의 未亡人은 90%의 학생이, 有子女의 未亡人은 1/4의 학생이 再婚하는 것을 贊成하는 方向으로 學生들의 사고방식은 전통적 觀念에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학생의 價値觀이 변하고 있으며 社會가 변하고 時流가 변하면서 대학생의 老人觀도 변하게 마련이다.

* 行政大學院長, 行政學科 教授

** 學生生活研究所 調査研究部長 (助教授, 行政學)

1) 洪承稷, 「韓國人의 價値觀 研究」, 서울: 高麗大學校出版部, 1971(再版), pp. 334~335.

대학생의 老人觀 역시 대학생의 價値觀의 일부라고 할 수 있거니와 洪承稷 교수는 大學生의 價値觀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다.²⁾

두말 할 것도 없이 후진사회일수록 지식층이 사회에 미치는 影響의 비중은 높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知識層중에서도 특히 大學生層은 하나의 조직된 집단으로서 4.19義舉와 같은 거사도 능히 일으킬 수 있는 무시 못할 존재이다. 韓國의 장래는 현재 젊은층인 大學生의 價値觀 여하에 달렸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만큼 韓國에서는 大學生이 차지하는 社會的 비중은 높은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대학생의 老人觀 역시 看過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대학생의 價値觀에 관하여서는, 洪承稷 교수 외에도 金仁子·黃應淵 교수의 「韓國大學生의 價値觀에 관한 研究」가 있고,³⁾ 관련된 여러 편의 연구결과가 있다.⁴⁾ 이와 같이, 대학생의 價値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대학생의 價値觀이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孝思想에 관한 연구 또는 천착도 대단하다. 이와 같은 연구 또는 천착이 이뤄지는 動因에는 두가지가 있다고 본다. 그 하나는, 본시, 전통적 孝思想은 우리나라에 그 淵源上, 뿌리 깊게 定礎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啓發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에 衰退一路에 있는 孝思想을 복원시켜보자는 데 그 뜻이 있을 것이다. 아 물론, 孝思想에 관해서는 尹聖範 編 「現代와 孝道」⁵⁾를 비롯하여 단행본으로 여러권이 출간되어 있다.⁶⁾ 단행본뿐만 아니라, 孝에 관한 논문으로서도, 朴在侃소장(한국노인문제연구소)의 「傳統的 孝思想과 그 現代的 意識」⁷⁾를 비롯해서 허다하다.

2) 上掲書, pp. 263~264.

3) 金仁子·黃應淵, 「韓國大學生의 價値觀에 관한 研究」, 서울: 西江大學校 社會問題研究所, 1974, 참조.

4) 韓國大學生의 價値觀에 관한 연구결과는 많으나, 그것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高明奎, 「濟州大學生의 價値觀에 관한 一研究」, 碩士學位論文,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1976.

△ 金泰吉, 「韓國大學生의 價値觀」, 서울: 一潮閣, 1967.

△ 張彦孝·安昌一·李光鎬, 「社會發展을 위한 大學生의 價値觀 및 意識構造 變化에 관한 研究」, 文教部 政策研究課題에 따른 學術研究報告書, 1982년 6월.

△ 洪承稷, 「韓國大學生의 價値觀」, 서울: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76.

△ 黃應淵, 「大學生의 價値觀 및 關聯된 變因에 관한 研究」, 서울: 益文社, 1975 등.

5) 尹聖範編, 「現代와 孝道」, 서울: 乙酉文化社, 1975, 참조.

6) 孝에 관한 단행본으로 발간되어진 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책들이 있다.

△ 金益洙, 「韓國의 孝思想」, 서울: 瑞文堂, 1977.

△ 새마을연구소, 「忠孝思想」, 서울: 檀國大學校出版部, 1977.

△ 皮千得 外, 「孝」, 서울: 汎友社, 1977.

△ 白南喆, 「孝의 研究」, 서울: 啓明社, 1977.

△ 韓泰源, 「韓國의 孝와 孝行」, 서울: 圖書出版 南島, 1990, 등.

7) 朴在侃, 「傳統的 孝思想과 그 現代的 意義」, 경기도: 韓國精神文化研究院, n. d.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서, 대학생과 忠孝 또는 孝行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하는 연구가 있어 왔다. 예컨대, 韓點洙의 “大學生과 忠孝思想”⁸⁾이 있었고, 高慶微의 “大學生의 孝行에 관한 研究”⁹⁾가 있었다. 이런 흐름이 진일보하여, 대학생은 老人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나라는 데 초점을 맞추는 연구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즉, 대학생의 老人觀에 관련되어진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이 가정에서 老人을 모시게 되거나, 또는 大學生들이 40代, 50代가 되어 老父母를 扶養하게 될 때의 모습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런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에 의해서 認知되어지고 있는 老人像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老人教育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¹⁰⁾ 한편, 老人觀을 이해한다는 것은, 老人에 관한 부정적 견해로 유인하는 神話(myths)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다.¹¹⁾

이런 점에 착안하여, 필자는 이 論文을 쓰게 되는 바, 이 論文 II의 부분에서는 대학생의 國內外 老人觀에 관한 先行 연구결과를 간추려 정리하여 보고, 이 論文 III의 부분에서는 제주도내 대학생들의 老人觀을 고찰하기로 한다. 앞서 말한 先行研究에서는 제주도내 대학생들의 老人觀에 관한 연구가 없었기 까닭에, 이 論文은 처음으로 제주도내 대학생들의 老人觀을 연구하게 되는 셈이다. 이 연구를 위한 接近方法으로서, 주로 設問紙를 통한 조사방법을 활용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II. 大學生의 老人觀에 관한 先行研究

대학생의 老人觀에 관한 先行研究들을 크게 나누어, 국내에 관한 연구와 국외에 관한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다음에 차례로 국내에 관한 연구와 국외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國內에 관한 先行研究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국내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 8) 韓點洙, “大學生의 忠孝思想”, 「論文集」 第24輯, 慶北大學校, 1977.
 9) 高慶微, “大學生의 孝行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漢陽大學校 大學院, 1987年 12月.
 10) Gregory F. Sanders, James E. Montgomery, Joe, F. Pittman, Jr., and Carolyn Balkwell,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984, Vol. 3, No. 1, p. 68.
 11) op. cit., p. 68.

- △ 서울시내 대학생의 孝行에 관한 연구
 - △ 釜山市내 대학생의 老人意識에 관한 연구
 - △ 大邱市内 대학생의 老人扶養意識에 관한 연구
 - △ 全北地方 대학생의 對老人態度研究
 - △ 그리고 忠北地方 대학생의 敬老意識分析에 관한 연구가 있다.
- 이들의 연구결과를, 차례로 나누어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서울시내 대학생의 孝行에 관한 연구

서울시내 대학생의 孝行에 관한 연구로는, 高慶微의 碩士學位論文인 “大學生の 孝行에 關한 研究”가 있다.¹²⁾ 이 論文을 간추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調査對象 : 서울시내에 위치한 4개 대학 학생 5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 調査期間 : 1987年 9月 9日~18日까지 10日間に 걸쳐 실시함.
- △ 研究結果 :

첫째, 대학생의 孝行 내용은 ‘恭敬의 孝道’ ‘親愛의 孝道’ ‘家意識의 孝道’ ‘侍奉의 孝道’ ‘保身·立身行道的 孝道’ 그리고 ‘自立의 孝道’로 분류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중에서 전체분산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恭敬의 孝道’이다. 이는 부모를 존경하는 일이 부모를 섬기는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道德的인 의무이므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둘째, 대학생의 孝行은 社會人口學的 變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셋째, 대학생의 孝行은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모든 내용에서 ‘그저 그렇다’와 ‘그렇다’ 사이에 분포되어 학생들은 모든 항목에 있어서 부모에게 孝를 행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傳統的 家庭倫理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이 또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저 그렇다’쪽에 치우친 ‘保身·立身行道的 孝道’와 ‘親愛의 孝道’로 인하여 老人問題, 老父母 敬시현상 그리고 靑少年問題 등이 발생한다고 할 때, 이는 주목할만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¹³⁾

나. 釜山市내 대학생의 老人意識에 관한 연구

釜山市내 대학생의 老人意識에 관한 연구로는, 玉亮鍊의 “韓國大學生の 老人意識”이라는 論文이 있다.¹⁴⁾ 이 論文을 간추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2) 高慶微, 前揭碩士學位論文, 참조.

13) 上揭論文, pp. 55~56.

14) 玉亮鍊, “韓國大學生の 老人意識” - 釜山市內 大學生을 對象으로 하여 -, 「法學研究」, 第19卷 第2號(通卷 26號), 釜山大學校 法政大學 法學研究所, 1976, 참조.

△ 調査對象：釜山 시내 4년제 대학생들의 2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전원은 총 4,060名(1976. 8월 현재)이었으나 선정된 2학년 전원을 학과별로 분류하였으며, 標本抽出은 無作為 標本抽出方法을 이용하였음. 회수된 質問紙는 총 436枚였음.

△ 調査期間：1976年 8월중

△ 研究結果：

釜山 시내 大學生을 대상으로 老人에 대한 意識을 男女學生別, 父親의 學歷別, 社會階層別, 出生地域別로 比較考察한 結果를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1) 調査對象者의 일반적인 屬性에서는 都市學生이 農村學生보다 많았다. 出生道別에서는 釜山市가 제일 많고 다음이 慶尙道 등의 순이며 生活程度에서는 中流層의 學生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宗教에 있어서는 宗教를 믿지 않는 學生이 믿는 學生에 비해 많았다. 父親의 學歷에서는 高卒出身이 많으나 國民學校도 卒業하지 못한 사람이 6.19%였다. 保護者의 職業에서는 事務職의 比率이 第一 높았고 宿所에서는 自宅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學生數가 많다는 것이 立證되었다.

2) 大學生들의 孝道意識에서는 자기 자신이 건전하게 산다는 것이 父母께 孝道가 된다는 것이 應答者의 55.05%로 第一位이고, 그 다음이 父母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다음은 자신이 立身出世하는 것, 父母의 老後를 奉養하는 순위이었다.

父親의 學歷別과 大學生의 孝道意識에 있어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자기 자신이 건전하게 산다는 것이 統計上으로 有意한 差異로 입증되었다. 階層別에 있어서는 階層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이 건전하게 사는 것이 父母께 孝道가 된다고 통계상으로 有意한 差異로 나타났으며 역시 教育과 階層과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地域別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이 건전하게 사는 것에서 農村出身學生들 보다 都市出身 學生의 比率이 높다는 것이 본연구에서 有意한 차이로 나타났다.

3) 男女大學生別의 扶養意識에 있어서는 통계상으로 有意한 差異는 없었다. 父親의 學歷別에 있어서도 扶養과는 有意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社會階層別에 있어서는 大學生의 扶養意識에는 統計上으로 有意한 差異가 있었다. 또한 地域別에 있어서도 扶養意識에는 有意한 差異는 없었으나 大家族社會에 있어서는 長男이 책임이 있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長男外에도 父母의 扶養責任 意識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大學生들의 의식으로 입증되었다.

4) 60歲前의 子息과 同居意識에 있어서는 같이 살고 싶다는 비율이 높았다. 男女學生別에 있어서는 男學生에 비해 女學生이 같이 살고 싶다는 그 비율이 높았으며 統計上으로도 有意한 差異로 나타났다. 父親의 學歷別과 同居意識에서도 有意한 差異로 父親의 학력이 높을수록 같이 살기 싫다는 것이 본연구에서 입증되었다. 階層別에 있어서는 통계상으로 有意한 差異는 없었으며 地域別에 있어서도 同居意識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60歲後의 자립하고 싶다는 것은

남녀학생별의 경우 통계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자립하고 싶다가 64.22였다. 父親의 學歷別에 있어서도 통계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역시 階層別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지역별에 있어서도 통계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60歲전의 대학생의 同居意識에서 같이 살고 싶다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韓國 大學生들의 敬老思想과 扶養意識이 높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60歲후의 자립하고 싶다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 韓國 大學生들의 일반적인 의식은 核家族의 추이와 機械化된 社會에서 바람직한 家族形態로 認識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5) 老人의 孤立化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는 男女學生別의 경우 통계상으로 有意한 差異는 없었다. 父親의 學歷別에 있어서도 有意한 差異는 없었다. 階層別에 있어서는 有意한 差異가 있었다. 그러나 지역별에 있어서는 통계상 有意한 差異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나 가정에서 자식들이 보호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韓國大學生의 敬老思想이 여기에서도 입증되며 우리 나라의 老人福祉의 제도적 모순과 운영에 잘못된 점 등이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老人의 職業意識에 있어서는 老人도 職業을 가져야 된다는 비율이 높았다. 男女大學生別에 있어서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보다 노인도 職業을 가져야 한다는 데 비율이 높다는 것이 통계상으로 有意한 差異로 나타났다. 그것은 職業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男女學生을 합하여 65.60%였다. 그러나 父親의 學歷別에 있어서는 통계상으로 有意한 差異는 없었다. 역시 階層別에 있어서도 就業意識과는 有意한 差異는 없었다. 지역별과 취업의식은 도시출신의 학생을 농촌출신의 학생들 보다 職業을 가져야 한다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 본연구에서 통계상으로 有意한 差異가 있다고 입증되었다. 그것은 오늘날 韓國大學生들도 老人도 職業을 가져야 老化를 방지할 수 있다는 敬老思想을 보여 주었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老人의 용돈마져 주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에서 오늘날 韓國大學生들의 老人에 대한 意識構造를 조사연구한 결과에서는 다른 조사보고에서 보다 다른 면들을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도 좀더 老人을 위한 社會的 福祉가 강화되어야겠다는 것과 家族內의 保護를 위해서는 家族內의 보다 나은 人間關係와 老人의 扶養이 중요시 된다고 하겠다.¹⁵⁾

다. 大邱市 大學生의 老人扶養意識에 관한 연구

大邱市 大學生의 老人扶養意識에 관한 연구로는, 朴泰龍의 論文, “大學生의 老人扶養意識”이 있다.¹⁶⁾ 이 論文을 간추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5) 上揭論文, pp. 252~253.

16) 朴泰龍, “大學生의 老人扶養意識”, 『社會福祉研究』 第14輯, 大邱大學校 社會福祉研究所, 1986, 참조.

△ 調査對象：大邱市内 某大學의 재학생, 443名을 대상으로 하였음

△ 調査期間：1985. 6. 10~14

△ 調査結果：

1) 老人의 房이 종전의 안방중심(48.3%)에서 건너房(31.1%)이나 별채의 房(17.8%)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러한 扶養意向은 여성(59.0%)이 男性(43.3%)보다 높게 나타났다.

2) 食生活는 가족과 함께 한 식탁에서 즐기며(78.4%), 老人과의 食性이 다를 때의 食單결정은 老人을 기준으로하는 경우는 28.7%일 뿐이고, 서로 섞어서 차린다(42.0%)와 따로 차린다(23.9%)가 65.9%로서 老人中心에서 점차 夫婦中心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老人의 不潔에 대해서는 조사자의 68.4%가 不潔하거나(7.2%) 조금 不潔하다(61.2%)고 응답하였으며, 남성의 경우는 主成長地가 大都市(55.4%)보다 農漁村(76.1%) 출신이, 여성인 경우는 農漁村(65.6%)보다 大都市(72.0%) 출신이 더 不潔하게 생각했다.

4) 父母의 恩惠에 대해서는 감사하고(96.6%) 있으며, 結婚後 老父母扶養意向은 79.3%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남성(87.2%)이 여성(65.2%)보다 높게 나타났고, 父母扶養은 여자가 책임을 져야한다(80.2%)고 믿고 있었다.

5) 同居에 대해서, 老人은 가정생활을 和睦하게(85.3%)하며, 老人과의 가정생활에서 가장 좋을 때는 體驗談을 들려줄 때(51.9%)와 자신을 보살펴 줄 때(37.0%)였고, 가장 싫을 때는 잔소리가 심할 때(57.3%)와 家庭雰圍氣를 깨트릴 때(24.2%)였다.

6) 老後의 同居希圖는, 老父母扶養家庭에 대해서는 78.8%가 扶養家庭을 동경하고 자기자녀의 노인과 동거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긍정적 반응(78.6%)을 보이면서도 자신의 노후의 자녀와의 동거희망은 37.0%에 그쳐 자녀의존보다는 자력으로 생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7) 老人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무조건 따르는 것(10.2%)이 아니고 옳은 말씀만 따르는(83.9%) 경향이고, 相談意向도 논의하고 싶다(49.9%)와 논의하고 싶지 않다(49.4%)가 비슷한 반응을 보였으며, 여성(55.9%)이 남성(45.7%)보다 상담을 기피하는 경향이었으며, 상담시간은 오히려 여성(77.0%)이 남성(31.6%)보다 긴 것을 원하였다. 그리고 의견대립의 원인은 대부분이 노인과 자신의 이해부족(78.6%)으로 보았다.

8) 老人의 再就業에 대해서는 經濟的 수익을 위해서 老人職種을 개발하여 취업토록 한다(43.6%)와 社會保障制度의 확대로 家庭과 社會에서 편히 도시는 것이 좋다(41.3%)로 나타나 自己扶養과 社會保障에 관심을 보였다.

9) 老婚에 대해서는 38.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남성(41.5%)이 여성(34.2%)보다 높게 나타났다.

10) 老後의 生活設計는 99.1%가 자녀에게 의지할 수 없으므로 젊을 때 대비하거나(69.5%) 약간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29.6%)고 하였다.

11) 敬老優待制는 비교적 바람직하다(51.0%)고 여기고 있으나, 오히려 老人을 경시하는 풍조를 낳게 하거나(29.3%) 별로 좋다고 생각치 않는다(11.3%)가 높게 나타나 개선책을 요망하였다.

12) 有料養老施設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기고(55.5%) 있으나, 오히려 老人을 疎外·排除(34.8%) 하거나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는 경우(8.8%)가 상당수에 달하여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¹⁷⁾

라. 全北地方 대학생의 대노인태도에 관한 연구

全北地方 大學生의 대노인태도에 관한 연구로는, 車用殷의 논문, “老人에 對한 大學生의 態度研究 —全北地方을 중심으로—”, 가 있다.¹⁸⁾ 이 논문을 간추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調査對象: 全州地方에 있는 3개大學(全州大學, 全北大學, 圓光大學)의 大學生 남자 210名, 여자 210名을 선정하여 조사 실시

△ 調査期間: 1979年 10月~11月

△ 調査結果:

- 1) 일반적으로 大學生의 老人에 對한 態度는 상당히 否定的으로 나타났다.
- 2) 大學生의 老人에 對한 態度는 男學生보다 女學生이 더 否定的인 態度를 보이고 있다.
- 3) 大學生의 老人에 對한 態度는 老人과 접촉이 많은 學生이 老人에 對한 肯定的인 반응을 보였다.

4) 家庭教育이 엄격한 家庭에서 자란 大學生이 老人에 對해 더 肯定的이다.¹⁹⁾

마. 忠北地方 대학생의 敬老意識에 관한 연구

忠北地方 大學生의 敬老意識에 관한 연구로는, 김영삼의 論文, “젊은 세대의 敬老의식분석 —충북대학생의 경우—”가 있다.²⁰⁾ 이 논문을 간추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調査對象: 忠北大學生 100명

△ 調査期間: 1982年 3月 5日~4月 10日

△ 調査結果:

김영삼의 論文중 그 결론을, 필자가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7) 上揭論文, pp. 53~54.

18) 車用殷, “老人에 對한 大學生의 態度研究 —全北地方을 중심으로—”, 「論文集」 第九輯, 全州大學, 1980, 참조.

19) 上揭論文, p. 19.

20) 김영삼, “젊은 세대의 敬老의식분석 —충북대학생의 경우—”, 세계평화교수협의회, 학술세미나발표논문, 1982년 5월, 참조.

첫째로, 우리 대학생들은, 어느 나라 대학생들 보다도 敬老基準에 대한 훌륭한 의식을 지니고 있다.

둘째로, 老人은 子息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이른바 老人問題가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의 노인문제의 성격도 선진국의 예를 모방하여갈 것 같다.

셋째로, 老人과의 생활교류가 뜸해지는 것은 경로생활에 있어서 달갑지 못한 조짐이라 아니할 수 없다.²¹⁾

2. 國外에 관한 先行研究

위에서는 국내에 관한 선행연구를 一瞥하였거니와, 여기서는 국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이와 같은 연구로는,

- △ 日本에 관한 연구
- △ 台灣에 관한 연구
- △ 美國에 관한 연구
- △ 그리고 英國에 관한 연구가 있는바, 이들을 차례로 나누어 고찰한다.

가. 日本에 관한 研究

日本 大學生의 老人觀에 관한 연구로는, 徐炳淑 교수의 論文, “大學生의 老人觀에 관한 調查研究 — 韓國과 日本의 일부학생을 중심으로—”, 가 있다.²²⁾ 이 論文을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 論文은 韓·日間の 比較研究를 시도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 △ 調査對象：韓國 511名, 日本 567名
- △ 調査期間：1986年 5月 20日~6月 30日
- △ 調査結果：

- 1) 韓國學生의 祖父母와의 관
 - ① 祖父와 外祖父의 死亡이 높고 祖母와 外祖母가 건강하였다.
 - ② 同居는 祖母가 가장 많고 外祖父가 가장 적다.
 - ③ 對話는 祖母와 外祖母가 많고 祖父가 제일 적다.
 - ④ 좋은 추억은 外祖母와 祖母가 많고 祖父는 거의 없다.

21) 上揭論文, p. 19.

22) 徐炳淑, “大學生의 老人觀에 관한 調查研究 — 韓國과 日本의 일부학생을 중심으로—”, 「社會保障論集」 第6輯, 東國大學校附設 韓國社會保障研究所, 1986, 참조.

以上으로 祖父와 外祖父가 祖母나 外祖母에 比하여 孫子女와 단절된 生活을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으므로 祖孫間에 交流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韓日間 老人觀

- ① 老人이나 老人問題에 대하여 韓國學生의 관심이 더 높았다.
- ② 老人問題를 취급하는 수업은 韓日間 別로 없다는 것이 나타났다.
- ③ 大學生이 생각하는 老人年齡이나 老人問題는 韓日間에 유사한 面보다 相異한 점이 많았다.

韓國學生은 65~69세를 老人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39.5%로 가장 많고 日本學生은 70~74세를 老人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41.6%로 가장 많았다.

老人問題로 韓國은 高독·고립(19.8%)과 經濟的問題(18.0%)를 지적하고 日本은 몹시중(6.9%), 삶의 보람(6.5%), 육체적 정신적 건강(6.0%), 의료·복지(5.8%) 등에 골고루 관심의 比重이 分散되고 있었다.

- ④ 老人에 대한 理解는 韓國이 日本보다 대체적으로 理解度가 높은 것이 많았으나 ... 생략.

3) 韓日間 父母責任意識

- ① 孝道에 대한 意識은 韓國이 높다.
- ② 孝道에 대한 內容은 ①번과 ⑤번에서 差異가 있다.
- ③ 어렸을 때 孝道教育은 韓國이 많이 받았다.
- ④ 父母와의 同居意識에는 韓國이 높고 男女別로 차이가 있는데 日本은 차이가 없다.
- ⑤ 동거이유는 韓日間에 相異한 理由를 들고 있다.
- ⑥ 父母에 대한 扶養意識은 韓國이 높고 男女間에 差異가 있다. 韓國은 男子가, 日本은 女子가 더 높다.

- ⑦ 몹시중意識은 韓國이 더 높고 韓日間 男女間 相異한 점은 없었다.

⑧ 家族문제로 家族관계에 대해서는 韓日間에 만족한 편이고 韓日間에 不滿의 理由로는 「家族間의 對話不足」 「父母의 不和」를 들었다.

姑婦關係는 韓日間에 비교적 좋은 편이고 不和의 理由로는 韓日間에 「祖母에게 문제있음」 「世代差·價値觀差·感情의 差」로 나타났다.

以上の 調査結果를 綜合해 보면 韓國의 大學生은 敬老意識의 弱化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先行研究와는 달리 老人에 대한 관심과 理解가 많고 父母責任意識도 투철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日本學生의 意識調査를 통하여 老齡人口의 增加, 經濟水準의 上昇, 그리고 社會保障의 정비는 老人에 대한 관심이나 孝道觀이 회박해지는 傾向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²³⁾

23) 上揭論文, pp. 80~81.

나. 台灣에 관한 研究

台灣 大學生의 老人觀에 관한 연구로는, 역시 徐炳淑 교수의 論文, “父母老後의 扶養意識과 老人Image (韓國, 日本 및 台灣學生의 比較)”라는 논문이 있다.²⁴⁾ 이 논문은 3개국 大學生을 비교하고 있는 점이 돋보이거니와, 이 논문을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調查對象 : 韓國측 511명, 日本측 567명, 台灣측 512명

△ 調查期間 : 1986年 5月~10月.

△ 調查結果 :

- ① 三國의 大學生들은 老父母에 대한 扶養意識이 대체적으로 높았다.
- ② 同居扶養意識의 規定要因은 出生順位라는 規範的要因이 作用하였다. (三國共通)
- ③ 經濟的 扶養意識 몹시중 扶養意識의 規定要因은 「家族관계에 대한 만족」 「孝道意識」 「母親과 祖母관계의 원만」등 情緒的要因이 作用하였다.
- ④ 「孝道意識」과 「孝道教育받은정도」는 韓國과 臺灣은 매우 높는데 비해 日本은 낮았다.
- ⑤ 老人에 대한 image는 韓國과 臺灣學生은 「따뜻하고」 「세말하고」 「안정적이라고」 긍정적인 image를 갖고 있는데 비하여 日本學生들은 「보수적」이고 「고집세고」 부정적인 image를 갖고 있었다.²⁵⁾

다. 美國에 관한 研究

美國 大學生의 老人觀에 관한 연구로는, 玉亮鍊 교수의 論文, “韓國과 美國大學生의 老人意識”이 있다.²⁶⁾ 이 논문을 간추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調查對象 : 대상자는 각국마다 410명을 면접한 후 분석에 가능한 설문지를 한국과 미국 각각 365개로 하였다.

△ 調查期間 : 美國의 경우 1980年 6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였으며, 韓國의 경우는 1981年 10월 5일에서 11월 10일까지 하였음.

△ 調查結果 :

- ① 노인을 규정하는 나이는 대체적으로 양국에서 65~69세가 그 비율이 높았다. ②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비활동성이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③ 노인과의

24) 徐炳淑, “父母老後의 扶養意識과 老人 Image (韓國, 日本, 台灣學生의 比較)”, 「社會保障論集」 第7輯, 東國大學校附設 韓國社會保障研究所, 1988, 참조.

25) 上揭論文, p. 113.

26) 玉亮鍊, “韓國과 美國大學生의 老人意識 — 부산대학교와 유타주립大學校를 대상으로—”, 「社會科學論叢」 第3卷 第2號 (通卷 第6號), 釜山大學校 社會科學大學, 1984, 참조.

同居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한국대학생들이 그 비율이 높았다. ④ 부모의 부양에 있어서는 자녀 전부가 해야 한다는데 양국가의 비율이 높았다. ⑤ 효도의식에서는 한국대학생들의 경우 양친의 제안을 따르며 행동하는 것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미국대학생의 경우에는 부양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⑥ 노인의 교육에 있어서는 한국대학생들과 미국대학생들은 다같이 찬성으로 나타났다. ⑦ 노인의 복지에 있어서는 한국대학생은 레크레이션센터에 비율이 높고 미국대학생은 건강과 병원시설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²⁷⁾

라. 英國에 관한 研究

英國 대학생의 老人觀에 관한 연구로는, 李鉉雨 교수의 論文, “老人扶養에 關한 世代間의 意識差 研究 - 韓國과 英國 大學生을 中心으로 -”가 있다.²⁸⁾ 이 논문은 韓國과 英國의 大學生을 대상하여, 大學生의 老人觀을 高찰한 것으로, 이 논문을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調査對象 : 韓國의 경우 217명, 英國의 경우 96명

△ 調査期間 : 韓國의 경우 1985年度이고, 英國의 경우는 1984年 2月

△ 調査結果 :

英國과 韓國大學生 間의 老人扶養에 대한 意識의 差

첫째, 子女들의 父母扶養 期待觀은 韓國大學生들과 英國大學生 間에 確실한 差가 있었다. 韓國大學生들이 反應한 子女들이 父母扶養 期待觀은 模호한 태도로 反應하였으나 英國의 大學生들은 독립성 유지에 강조를 하였다($x^2=56.5$ $p < .005$).

둘째, “당신의 扶養責任은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에 대한 韓國大學과 英國大學生 間에 確실한 差가 있었다. 韓國大學生들은 자신의 扶養責任 소재를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다고 反應하였으며, 英國大學生들은 모든 아들과 딸이 함께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x^2=132.9$ $p < .005$).

셋째, 미래의 老人問題 解決方法에 關한 韓國과 英國大學生 間의 反應에는 確실한 差가 있었다. 韓國大學生들은 老人問題 解決方法을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英國大學生들은 자녀들이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反應을 강하게 나타내었다. ($x^2=87.2$ $p < .005$)

넷째, “老人福祉 問題를 위해서 해야할 시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反應으로 韓國大學生들과 英國大學生들 共히 老人福祉金 마련에 의견이 일치되었다. 老人福祉對策의 우선적인 것은 兩國 大學生들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나, 기타 여러가지 항목에는 상이한 의견의 差가 있었다. 즉 全體의인 내용에서 양국 大學生의 의견에는 確실한 차를 나타내었다. ($x^2=98.7$, $p < .005$)

27) 上揭論文, pp. 185~186.

28) 李鉉雨, “老人扶養에 關한 世代間의 意識差 研究 - 韓國과 英國 大學生을 中心으로 -”, 『論文集』 제34집, 釜山水大, 1985, 참조.

다섯째, “여러분은 미래에 老後對策을 준비할 예정입니까?”에 대한 반응에서 양국 대학생이 공히 준비할 예정이라는 積極인 態度를 표명했다. 오늘날 양국 大學生들은 미래의 老後對策에 크게 關心을 갖고 있음이 分明하며 이러한 의견에는 큰 차가 없었다. ($\chi^2=8.0, .01 < p < .025$)

여섯째, 老後對策마련 방안에 대한 반응에서 韓國과 英國大學生들 간에 확실한 의견의 차가 있었다. 韓國大學生들은 무리해서라도 老後對策을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데 비해 英國大學生들은 여유가 있을 때 마련하겠다는 유연한 태도를 밝혔다. ($\chi^2=38.8, p < .005$)

일곱째, 老人에 대한 젊은이들의 態度觀에 대한 반응에서 兩國大學生들은 공히 “그저 그렇다”에 意見이 一致되어 차가 없었다. 양국 젊은이들이 老人尊敬의 태도는 모호하였다. ($\chi^2=7.6, p > .05$)

여덟째, 老人問題에 對한 關心度는 兩國學生들이 공히 높은 반응을 하여 의견의 차는 없었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모호하였으나 老人問題의 社會的인 측면에서 관심도는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chi^2=1.0, p > .05$)

아홉째, 養老院을 방문한 경험에 대한 반응은 양국대학생들 간에 큰 차가 있었다. 韓國大學生들은 養老院 방문경험이 전혀 없다는 반응에 높은 응답을 하였으며, 英國大學生들은 養老院 방문경험이 있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차이가 생긴 원인은 兩國間의 制度上의 차이에서 생겨진 것으로 풀이된다. ($\chi^2=65.4, p < .005$)

마지막으로, 老人福祉의 最善策에 대한 반응은 韓國과 英國大學生들 간에 큰 차가 있었다. 韓國大學生들이 느끼는 最善策은 老人에게 職業을 마련해 주는데 높은 반응을 보인데 비해, 英國大學生들은 자녀들에 의한 보호에 높은 반응을 하였다. ($\chi^2=102.7, p < .005$)

이상의 老人問題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면, 오늘날 兩國間의 大學生들이 老人에 對한 관심면에서 견해의 차이가 있으나, 모두가 老人을 위한 긍정적인 명에 치중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文化와 制度的인 차에서 內面化된 思考의 차이 때문이라고 추론된다.²⁹⁾

3. 國內外的 先行研究에 대한 考察

위에서, 大學生의 老人觀이라는 시각에서, 國內外的 先行研究를 개관하여 봤거나와, 서울시內의 경우는, 高慶微의 碩士學位論文, “大學生의 孝行에 關한 研究” 이외에, 許 勳의 “韓國大學生들의 老父母에 對한 家族扶養意識에 關한 調查研究”가 있다.³⁰⁾ 이 논문의 설문기간은 1988

29) 上揭論文, pp.138~139.

30) 許 勳, “韓國大學生들의 老父母에 對한 家族扶養意識에 關한 調查研究”, 「韓國老年學」 No. 8, 韓國老年學會, 1988, pp. 80~106.

年 4月 25日부터 동년 5月 12日까지이고 조사대상은 서울市内 10개 대학생 470명을 대상으로 設問調査를 하였으므로, 先술한 國內의 先行研究中에서 가장 최근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아무튼, 國內의 先行研究들은 時差가 있지만, 地域別로 보면, 國內의 先行研究들은 골고루 산재해 있다고 볼 수 있거니와, 제주도의 경우, 대학생의 老人觀에 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런 欠缺性을 보완하자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다.

요컨대, 國內의 先行研究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볼 때, 첫째로, 대학생의 敬老思想의 根底는 아직 薄弱하다는 점이다. 둘째로, 그러나 대학생들의 老人觀은 社會人口學的 諸變因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점에 착안하여, 許 勳은 先술한 논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있다.³¹⁾

첫째, 家族扶養은 經濟的, 精神的·情緒的, 身體的·service的 扶養이 同時에 提供될 수 있다는 長點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傳統的인 家族扶養의 原理가 老父母扶養의 根幹임을 勘案할 때 老父母扶養家庭에 對한 稅制, 手當 등의 惠澤을 優先的으로 附與하여 家族扶養體制의 維持強化를 國家的 次元에서 加一層 支援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向後 社會參與度의 意識調査結果 男·女 비슷한 比率로 나타났고, 또한 女子는 男子보다 平均壽命이 길고 數的으로도 女子老人이 많다는 것을 勘案해서 앞으로 高齡人力活用方案을 講究해야 할 것이다.

셋째, 向後 願하는 家族扶養類型이 獨立된 老人世代를 構成하고 子女들로부터는 經濟的·情緒的 支援을 받는 類型을 多數가 希望하고 있어, 앞으로 獨立된 老人世代가 增加할 展望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適合한 住宅形態의 開發이 要請될 뿐만 아니라, 獨立된 老人世代와 子息間에 心理的 不安을 解消하고 精神的·情緒的으로 滿足할 수 있는데 適合한 扶養制度의 模型을 開發하는데 注力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소개된, 許 勳의 提言中 셋째의 제언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즉, 同提言은 대학생의 老人觀上, 적합한 住宅形態를 개발하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거니와, 그 적합한 住宅形態는 바로 제주도의 “박거리模型”인 것이다.³²⁾ 이런 “박거리模型”과 비슷한 모형으로는, 서울 상계지구 3세대 가족형 아파트의 “인거형”이 있는데, 이 “인거형”이 인기가 높다는 것이 조사결과 나타났다.³³⁾ 따라서, 앞으로 “박거리模型”을 現代化시키면서,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1) 上揭論文, pp. 104~105.

32) 韓昌榮, 「濟州島の 天壽論」, 제주: 新亞文化社, 1990, pp. 54~61.

33) 朝鮮일보, 1990. 9. 17. <11>: 老부부 - 子女부부 83% 이상 “만족”.

각설하고 國외의 先行研究들은, 모두가 韓國의 大學生들과 比較연구한 것들임을 알 수 있거니와, 일반적으로 韓國大學生들의 敬老意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國외의 先行比較研究結果를 전제로 할 때, 韓國大學生의 扶養意識 또는 敬老의식은 보물 또는 보배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보물 또는 보배를 갖고 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제이무리 좋은 보물이나 보배라 할지라도, 그것을 갖고 닦지 아니하면, 제구실을 할 수 없는 법이다. 따라서 敬老思想의 源流에 대한 攻究와 개발이 필요하며, 敬老思想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Ⅲ. 濟州道內 大學生들의 老人觀에 관한 實態調查

1. 調查設計

현대 社會가 高度의 産業社會로 轉移되면서 既存의 倫理觀·價値觀이 흔들리고 있으며, 大學生들에게도 敬老思想 등 傳統的 家族觀이 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大學生의 老人觀 연시 大學生들의 價値觀의 일부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이들의 老人觀에 관한 의식을 조사·연구하는 것도 젊은이들의 老人意識을 파악하고, 國家的 차원에서도 老人福祉問題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思料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濟州道內 大學生들의 老人觀에 관한 實證調查는 濟州大學校를 비롯한 도내 3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2. 調查範圍와 方法

1) 調查對象과 期間

1990年 11月 30日 현재 濟州道內 4개 대학 재학생 9,751명(濟州大學校 6,556名, 濟州教育大學 240名, 濟州專門大學 2,090名, 濟州看護保健專門大學 865名)을 대상으로 1990年 11月 28일부터 12月 5일까지 8日간에 걸쳐 실시했다.

2) 調查方法과 標本抽出

(1) 母集團: 1990年 11月 30日 현재 濟州道內 4개 대학 재학생 9,751명을 기준

(2) 標本の 크기와 抽出

母集團에서 조사의 物理的 한계상 多段階 層化抽出方法(multiple-stratified sampling)에

의해 330名을 抽出, 標本의 크기로 삼았다.

(3) 調査方法

標本으로 抽出된 330名을 조사원(아르바이트 학생)이 1:1년접에 의해 대상학생이 직접기입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調査結果 328部의 設問紙가 回收되어 研究를 위한 자료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標本抽出方法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으나 연구의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음을 감안 그대로 實態調査를 실시하였는데 最終抽出된 대학별 학생은 (表-1)에서 보는 바와 같다.

(表-1) 最終抽出된 大學別 學生數

구 분	인 원
제 주 대 학 교	207 (남 124, 여 83)
제 주 교 육 대 학	24 (남 14, 여 10)
제 주 전 문 대 학	71 (남 42, 여 29)
제 주 간 호 보 건 전 문 대 학	26 (남 16, 여 10)
계	328 (남 193, 여 135)

(4) 設問의 項目 構成과 調査分析의 方法

① 設問項目의 構成

濟州道內 4개 대학 재학생들의 「大學生의 老人觀…」에 관한 意識調査를 하기 위한 설문문의 내용은 2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대학생들의 일반적 環境調査를 위해 성장배경, 부모의 직업, 출신지 규모, 보호자의 학력, 가정의 월 평균 소득, 생활정도, 노인과 생활해 본 경험, 가정교육 정도, 종교 등 15개 項目을 설정 기초조사를 했다.

다음으로 대학생들의 老人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장차(결혼후) 父母를 모시는 방법, 부양책임, 노인복지 문제 등 13개 항목을 설정하였다.

② 分析方法

회수된 자료 328매의 분석은 濟州大學校 電算所의 협조를 얻어 일반적 統計處理過程을 거쳐 문항별로 百分率로 산출했다.

2. 應答者의 일반적 家庭環境

濟州道內 4개 대학 재학생 9,751명을 母集團으로 하여 多段階 層化抽出方式을 이용 표본으로

추출된 330명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대상이 된 것은 328명이다.

應答者의 일반적 家庭環境은 (表-2)에서 보는 바와 같다.

(表-2) 應答者의 一般的 家庭環境

구 분	인 원 (%) (순위: 비율이 높은 순)	
성 별	남 193(58.8), 여 135(41.2)	
연 령	21세 83(25.3), 20세 70(21.3), 22세 57(17.4), 25세 34(10.4), 19세 28(8.4), 23세 21(6.4), 24세와 26세 각 7(4.0), 18세와 27세 각 3(0.9), 28세 2(0.6), 17세 1(0.3)	328(100)
보호자 직업	농·어업 169(51.5), 상업 46(14.0), 공무원 37(11.3), 서비스업 24(7.3), 회사원 19(5.8), 근로자 12(3.7), 전문직 5(1.5), 기타 10(3.0), 공업 3(0.9), 예술인 2(0.6), 종교인 1(0.3)	328(100)
출신지 규모	도·시 170(51.8), 군·읍·면 152(46.3), 특별시 4(1.2), 직할 2(0.6)	328(100)
보호자의 학 력	고졸(중퇴포함) 126(38.4), 중졸(〃) 86(26.2), 국졸, 대졸(〃) 56(17.1), 대학원 4(1.2)	328(100)
가정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하 131(39.9), 80만원 이하 105(32), 100만원 이상 52 (15.9), 20만원 이하 29(8.8), 200만원 이상 11(3.4)	328(100)
귀속 계층	중류 240(73.2), 하류 79(24.1), 빈민 7(2.1), 상류 2(0.6)	328(100)
노인과 생활 해 본 경험	있다 207(63.1), 없다 121(36.9)	328(100)
형제자매중 몇번째	세번째 이상 97(29.6), 첫번째 88(26.8), 막내 72(22.0), 둘째 71(21.6)	328(100)
가정교육	보통 202(61.6), 자유 64(19.5), 엄격 61(18.6), 기타 1(0.3)	328(100)
같이 생활하 는 가족	부모 202(61.6), 형제자매 255(77.7), 모 48(14.6), 조모 40 (12.2), 조부모 12(3.7), 부 5(1.5), 조부 3(0.9), 모두 안계시 다 1(0.3)	328(100)
본인 종교	무 183(55.8), 불교 69(21.0), 기독교 36(11.0), 카톨릭 32 (9.8), 기타 8(2.4)	328(100)
가족 종교	불교 172(52.4), 무 79(24.1), 카톨릭 25(7.3), 기독교 24(7.3), 가족마다 다름 22(6.7), 기타 6(1.8)	328(100)
노인은 몇세부터	60세 129(52.4), 65세 127(38.7), 70세 51(15.5) 55세 6(1.8), 61세 3(0.9), 50세, 58세, 62세, 68세 각 2(0.6), 40세, 67세, 69세, 90세 각 1(0.3)	328(100)

3. 結果 및 分析

1) 장차 父母를 모시는 問題

濟州道內 대학생들의 장차(결혼한 후) 父母를 모시는 問題에 대해서는 (表-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시겠다”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우리 社會가 高度의 産業社會로 발전하면서 傳統的 家族觀의 變化로 인한 “老人 푸대접” 현상 등은 그다지 우려할 問題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表-3) 장차 부모를 모시는 問題

구 분	인 원 (%)
꼭 모셔야 한다	79 (24.1)
모시려고 생각한다	136 (41.5)
여건이 허락하면 모셔야 한다	106 (32.2)
모실 필요가 없다	7 (2.1)
계	328 (100)

2) 父母를 모시는 方法

이 설문은 앞의 (表-3)중 父母를 모시겠다고 응답한 학생에 한해 응답토록한 것인데 (表-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같은 울타리 가옥에서 모시고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4) 父母를 모시는 方法

구 분	인 원 (%)
같은 가정에서 살려고 한다	226 (68.9)
같은 울타리 독립 가옥	73 (22.3)
이웃에 모셔 살려고 한다	29 (8.8)
계	328 (100)

3) 父母의 부양책임

父母의 부양책임에 대하여서는 우리 社會의 傳統的 家族觀에서 연유되는 長男 우선 책임에서

벗어나, 모든 子女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意識의 변화를 보이고 있어 주목할 만 하다. 또한 小數이긴 하지만 父母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자(6순위 4.3%)도 있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表-5) 참조

(表-5) 父母의 부양책임

구 분	인 원 (%)
장 남 이 전 적 으 로	22(6.7)
모 든 아 들 이 공 동 으 로	40(12.2)
능 력 있 는 아 들	72(22.0)
장 남 이 제 일 많 은 책 임	16(4.9)
모 든 아 들 · 딸	154(47.0)
마 음 에 드 는 자 녀	7(2.1)
부 모 자 신 이 져 야	14(4.3)
잘 모 르 겠 다	3(0.9)
계	328(100)

4) 老人問題 해결방안

老人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表-6)에서 보는 바와 같이 子女들이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선 순위를 보이고 있는 반면, 國家나 地域社會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 두번째 순위를 보이고 있고, 老人 스스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3번째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설문에서도 長男의 책임은 최하위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表-6) 老人問題 해결방안

구 분	인 원 (%)
노 인 스 스 로	67(20.4)
자 녀 들 이	115(35.1)
장 남	7(2.1)
지 역 사 회 에 서	37(11.3)
국 가 에 서	81(24.7)
잘 모 르 겠 다	21(6.4)
계	328(100)

5) 老人福祉問題중 시급한 문제

老人福祉問題중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老人들이 일할 일자리 마련이며, 다음이 老人福祉基金 마련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 社會가 안고 있는 老人福祉政策의 해결 방안과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表-7) 참조

(表-7) 老人福祉問題중 시급한 문제

구 분	인 원 (%)
노인복지기금 마련	124 (37.8)
많은 경로당의 건립	10 (3.0)
일 자리 마련	169 (51.5)
많은 양로원의 설립	6 (6.8)
기 타	12 (3.7)
잘 모르 겠 다	21 (6.4)
계	328 (100)

6) 노후 대책

濟州道內 大學生들에게 장차 노후대책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表-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준비하려고 한다는 학생이 대부분으로, 현재의 대학생이 老人이 됐을 경우 노후대책에 밝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表-8) 노후 대책

구 분	인 원 (%)
준비하려고 한다	266 (81.1)
안 한다	12 (4.3)
잘 모르 겠 다	48 (14.6)
계	328 (100)

7) 노후대책의 준비는 몇세부터

노후대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생이 활동력이 왕성한 40대부터 라고 응답하고 있어 노후에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끼치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는 (表-6)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풀이되고 있다. 대학생 35.1%가 父母의 노후책임은 자녀들이 해결하여야 한다는 응답은 역으로 노후의 책임은 스스로 해결(20.4%) 하겠다는 의지와 상통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表-9) 노후대책의 준비는 몇세부터

구 분	인 원 (%)
40세쯤부터	153(46.6)
45세쯤부터	74(22.6)
50세쯤부터	46(14.0)
55세쯤부터	31(8.5)
60세가 넘어야	24(7.3)
계	328(100)

8) 노후대책의 준비방법은

노후대책의 준비방법도 (表-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소 꾸준히 준비하겠다는 비율이 높으며 또한 子女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비율이 1.5%밖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면 (表-9)에서 보여 주듯 40대부터 꾸준히 저축하겠다는 것으로, 대학생들의 노후대책 마련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表-10) 노후대책 준비방법

구 분	인 원 (%)
꾸 준 히 저 축	209(63.7)
여유가 있을 때 조금씩	100(30.5)
자 녀 의 도 움	5(1.5)
잘 모 르 겠 다	14(4.3)
계	328(100)

9) 老人을 대하는 態度

대학생들의 老人을 대하는 태도도 많은 학생이 親切함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 社會의 病廢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敬老思想의 퇴락은 별 문제가 없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表-11) 참조

(表-11) 老人을 對하는 態度

구 분	인 원 (%)
매 우 친 절	75 (22.9)
약 간 친 절	172 (52.4)
그 저 그 령 다	75 (22.9)
다 소 불 친 절	4 (1.2)
불 친 절	1 (0.3)
관 심 없 다	1 (0.3)
계	328 (100)

10) 老人問題에 對한 平소의 생각

高度의 産業社會가 되면서 核家族 現象으로 젊은이들의 價値觀의 상실로 인한 敬老思想의 결여, 극도의 利己主義가 팽배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表-1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濟州道內 대학생들 대부분이 老人問題를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12) 老人問題에 對한 平소의 생각

구 분	인 원 (%)
있 다	257 (78.4)
없 다	71 (21.6)
계	328 (100)

11) 老人福祉시설을 방문해 본 경험

老人福祉施設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表-13)에는 전혀 방문하지 않았다는 학생이 많다. (表-12)에서 보여준 학생들이 老人問題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學生들이 평소 老人問題를 생각하고는 있지만 학업 등 바쁜 生活로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表-13) 老人福祉施設을 방문해 본 경험

구 분	인 원 (%)
자 주 방 문	9 (2.7)
한 · 두 번 방 문	117 (35.7)
전혀 방문하지 않았다	202 (61.6)
계	328 (100)

12) 老人福祉를 위한 최선의 政策은

이 項은 앞의 4), 5)問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表-1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老人福祉를 위한 최선의 政策은 老人들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다음이 政府次元에 의한 보호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老人들에 대한 일자리 마련이나 政策차원의 보호대책도 궁극적으로는 政府가 해야할 社會福祉政策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先進國型 政策을 펴야 할 것이다.

(表-14) 老人福祉를 위한 최선의 政策은

구 분	인 원 (%)
직 업 마 련	139 (42.4)
자 녀 에 의 한 보 호	73 (22.3)
양로원에서 편히 지내게 하는 것	3 (0.9)
정부차원에 의한 보호	102 (31.1)
잘 모 르 겠 다	11 (3.4)
계	328 (100)

13) 濟州道 父母들의 경우 자식과 같이 살지 않으려는 경향에 대해

(表-15)에서 보는 것과 같이 거의 모든 학생이 父母(老人)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는 반면, 父母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응답자도 더러있어 주목해 볼 만한 것으로 지적됐다.

(表-15) 濟州道 父母들의 경우 자식과 같이 살지 않으려는 경향에 대해

구 분	인 원 (%)
부모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	32 (9. 8)
무조건 자식이 모셔야	16 (4. 9)
노 인 의 견 존 중	272 (82. 9)
잘 모 르 겠 다	8 (2. 4)
계	328 (100)

4. 分析結果 要約

'70년대 이후 우리 사회가 高度의 産業社會로 移轉되면서 우리 생활주변에 깊숙히 뿌리내렸던 傳統的 家族觀 등 社會의 여러 측면에서 變動을 가져오고 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인구의 都市集中化와 家族構造 및 家族機能의 變化이다. 도시화에 따르는 居住移動의 多邊化, 科學技術의 발달로 인한 직업의 專門化 등은 夫婦中心의 核家族化 현상이나 직업을 갖은 자녀(결혼·미혼 포함)들을 家族이란 집단으로부터 이탈케하는 “격리”현상을 낳고 있다.

또한 「매스·미디어」의 量的 증대는 家族關係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보면 자녀들의 사회화의 학습은 父母 즉 가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다는 「매스·미디어」나 친구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家族內의 세대간의 격차와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그 한 예이다.

사회적 變動이 급속한 현대에 있어서 옛 價値觀을 새로운 價値觀으로 이행하려는 과정에서 價値觀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복잡한 사회현상속에서 老人에 관한 濟州道內 대학생들의 意識을 측정하는데 그 목적을 뒤 實證調查를 했는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濟州道內 대학생들이 장차(결혼후) 父母를 모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시고 살겠다”는 매우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그 방법도 같은 가정에서 모시고 살기를 원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傳統的 家族制度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父母의 부양책임은 우리 사회에서 傳統的으로 내려오는 長男 우선순위에서, 모든 아들·딸들에 책임이 있다고 답하고 있어 變化를 보이고 있다.

2) 노인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해결하든지 아니면 國家次元에서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老人에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최우선 政策으로 제시되고 있다.

3) 대학생 자신의 앞으로의 노후대책에 대해서는 2)항의 영향때문인지 40대부터 꾸준히 마련 하겠다고 응답하고 있어 自立意識이 높았다.

4) 自立心이 강한 濟州道民의 경우 父母들이 子息과 같이 살기를 꺼리는 경우 父母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학생들이 老人에 대한 意識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으며, 한가지 특이한 점은 종전의 長男中心의 扶養責任이 사라지고 모든 子女가 共同責任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조사결과 老人福祉政策은 일자리 마련 등 國家的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많음을 제시하고 있다.

IV. 結 論

社會學 및 心理學의 일반이론에 의하면 한 사회의 價値指向性 혹은 價値觀은 그 社會構成員들의 社會化 과정을 통해서 內面化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한 사회의 安定度는 社會構成員들의 價値觀의 반영인 社會적 규범을 얼마나 잘 준수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 사회의 價値觀은 그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核心要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8.15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는 동안 劇한 社會變動을 겪어 왔다. 특히 70年代 이후 정부의 經濟成長 위주의 정책으로 우리 사회에 物質萬能主義가 팽배하는 등 白衣民族의 自矜心으로 여겨왔던 儒教的 價値觀인 長幼有序, 孝道 등 傳統的인 家族觀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리가 높다.

본 연구는 社會變動의 소용돌이 속에서 현대사회의 知識層,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집단의 價値觀 중 敬老에 대한 意識變化를 측정하는 데 한정시켰다.

또한 濟州道內 대학생들의 “老人觀”에 대한 意識調查를 한후 時系列的으로 차이는 있지만 서울, 釜山, 大邱, 忠北, 全北 등 全國 5개 대학 대학생들의 “老人에 관한 意識調查”(76년부터 85년까지)와 濟州道內 대학생들의 의식을 부분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6개 지방의 대학생들이 보인 父母에 대한 扶養責任은 長男外의 子女에도 扶養責任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즉 우리 사회에 傳統的으로 내려오는 長男 우선순위(父母扶養 責任)가 무너지고 있었다.

2) 老人들의 扶養責任은 우선 子女들이 책임져야 하고, 다음으로 국가에서 老人에 일자리를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3) 대학생들 자신의 노후문제에 대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4) 老人에 대한 孝行, 保護 등은 전지역 대학생이 여전히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 敬老思想의 근간은 변치않고 있다.

위에서 대학생의 老人觀에 관한 先行研究 결과를 요약하는 한편, 濟州道를 중심으로 대학생의 老人觀에 관한 實態調査를 분석하여 봤거니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問項別 相關關係分析을 미루었다는 점과, 同一 時系에 따르는 比較分析을 실시하지 못했다는 점들이다.

요컨대, 이 논문은 대학생의 老人觀에 관한 연구가 不毛地였던 濟州道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찾아 볼 수 있겠으나, 理想論으로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대학생의 老人觀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대학생의 老人觀을 攻究함으로써, 이들 대학생이 장차 자라서 老人福祉에 관심을 갖게 될 때를 위하여, 老人福祉政策을 수립하는 데 예척가능한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학생의 老人觀에 관한 연구는 다른 분야의 연구보다도 중요성이 倍增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서 대학생의 老人觀에 관한 연구가 國內·外的으로 비교 연구되어진다면 韓國大學生의 老人觀에 관한 位相을 정초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韓國大學生의 老人觀의 특질을 규명할 수 있게 되어 갈 것이다.

實態調査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생의 老人觀에서 敬老思想의 근간은 온존되어 있음을 분석하여 봤거니와, 이 敬老思想이야말로 앞으로 國內·外的으로 비교·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끝으로, 敬老思想의 천착을 위해서도 대학생의 老人觀에 관한 연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논문이 우리나라 고유의 敬老思想을 啓發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점이 있게 된다면 다행이라 생각한다.